

우승 후보였는데… 잇단 부상 악재에 울상짓는 KIA

야수진 쪽에서 김도영·김선빈·박찬호 돌아가며 부상
불펜 투수 광도규는 시즌 마감… 황동하도 허리 다쳐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이범호 KIA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통합 우승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잇단 부상 악재에 표류하고 있다.

KIA는 7일까지 16승 19패를 기록해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다. 4월12일에는 최하위까지 처지기도 했다.

KIA는 2024시즌 87승 2무 55패로 정규시즌 1위를 차지했고,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5시즌을 앞두고도 KIA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 겨울 전력 누수가 크지 않았다.

필승조로 뒤편 장현식이 프리에이전트(FA)가 돼 LG 트윈스와 4년, 총액 52억원에 계약하고 팀을 떠났지만, 트레이드로 공백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12월 키움 히어로즈에 현금 10억원과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구원왕 출신인 조상우를 데려왔다.

제임스 네일, 아담 올리, 양현종이 1~3선발을 이루는 선발진이 탄탄했고, 지난해 구원왕인 마무리 투수 정해영도 버티고 있었다. 김도영을 비롯해 나성범, 최형우, 김선빈, 박찬호 등이 포진한 타선도 짜임새가 좋다는 평가였다.

우승 후보라는 평가 속에 야심차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팀 내 핵심 선수들이 돌아가며 부상을 당한 탓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월22일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2024시즌 최우수선수(MVP)인 김도영이 이탈했다. 김도영은 개막전에서 안타를 친 후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이 나왔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주전 유격수 박찬호는 3월25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도루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베테랑 2루수 김선빈은 3월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종아리에 통증을 느낀 뒤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필승조 좌완 투수 광도규는 왼쪽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아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야수 쪽에 공백이 커지면서 타선의 짜임새가 떨어진 KIA는 개막 이후 16경기에서 6승 10패에 그쳐 순위가 9위까지 처졌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박찬호가 4월5일 복귀하고, 김선빈도 지난달 18일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김도영도 한 달 넘게 치료와 재활에 매달린 끝에 4월25일 1군에 합류했다.

타선 완전체를 꿈꾼 것도 잠시였다. 김도영이 돌아오고 이틀 뒤인 4월27일 강타자 나성범이 부상을 당했다.

4월26일 광주 LG 트윈스전에서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낀 나성범은 오른쪽 종아리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아 최소 2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됐다.

불의의 사고까지 KIA를 덮쳤다.

황동하는 휴식일이던 지난 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원정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동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허리 부상을 당했다.

요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황동하는 최소 6주 동안 안정해야 한다. 재활 기간까지 따지면 사실상 전반기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선에서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나성범과 최근 불펜에서 선발로 보직을 전환한 뒤 7일 고척 키움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황동하의 이탈은 KIA에게 적잖은 손실이다.

잇단 부상 속에 반동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월 중순 KT, 두산을 상대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반등하는 듯 했던 KIA는 이후 3연패를 당하며 다시 주춤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어진 9연전 기간 동안 치른 7경기에서는 3승 4패에 머물렀다.

/뉴시스



높이뛰기 우상혁, 왓그래비티챌린지 우승

국제대회 4연승… 바르샤바 주최 대회에서 2m29로 1위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이 세계 최정상급 점퍼가 대거 출전한 ‘왓 그래비티 챌린지(What Gravity Challenge)’에서 우승했다.

우상혁은 10일(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라 원형극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2m29를 넘어 정상에 올랐다. 왓 그래비티 챌린지는 높이뛰기 전설로 불리는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이 주최하는 육상 높이뛰기 이벤트 대회다.

이번 대회엔 2024 파리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를 비롯해 셀비 매규언(미국), 주본 해리스(미국), 아카마쓰 료이치(일본) 등 최정상급 점퍼 11명이 우승을 다퉈왔다.

지난해 1회 대회에서 바르심에 밀려 2위를 기록했던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선 1위에 올랐다.

대회를 주최한 바르심은 출전자 명단에 올랐으나, 경기에 나서지 않고 ‘운영 요원’ 역할을 했다.

우상혁은 2m15, 2m20, 2m23, 2m26을 모두 1차 시기에 성공했다.

이어 2m29에선 1, 2차 시기에 실패한 뒤 3차 시기에 넘었다.

우상혁의 경쟁자였던 레이먼드 리

처즈(자메이카)와 료이치가 2m29에서 실패하면서 우상혁의 우승이 확정됐다. 우상혁은 2m33에 도전했으나, 바를 건드리며 기록을 더는 높이지 못했다.

올해 우상혁은 2월9일 시즌 첫 출전 대회인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2m31로 우승했고, 같은 달 19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에서도 2m28로 정상에 올랐다.

3월21일 중국 난징에서 치러진 2025 세계실내선수권에선 2m31로 우승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점퍼들이 대부분 출전한 왓 그래비티 챌린지에서도 가장 높이 날아올라 올해 국제대회 4연승을 달렸다.

우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2025년은 내게 의미 있는 시즌으로 남을 것 같다”며 “새벽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오늘처럼 즐겁게 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처음 열린 왓 그래비티 챌린지 여자부 경기에선 파울리넬 챔피언 야로슬라바 마후치크(우크라이나)가 2m02를 넘어 우승했다. /뉴시스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백성포만장제

2025.5.29.㉮ ~ 6.1.㉰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 KKH 영광수열 문화관광협

이강인 ‘챔스’ + 손흥민 ‘유로파’… 한국 선수 동반 우승 도전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과 공격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각각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과 Uefa 유로파리그(UEL)에서 정상을 바라본다.

이강인의 PSG는 지난 8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아스널(잉글랜드)과의 2024~2025시즌 UCL 준결승 2차전에서 2-1로 승리, 합계 점수 3-1로 결승에 올랐다.

PSG는 2019~2020시즌 이후 5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한 데 이어 역사상 첫 ‘빅이여(UCL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결승에서 마주할 상대는 바르셀로나(스페인)를 꺾고 올라온 인터밀란(이탈리아)이다.

대망의 결승전은 내달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이강인은 과거 박지성과 손흥민에 이어 한국 선수 중 역대 세 번째로 UCL 결승에 진출했다.

남은 시즌 UCL과 쿠팡 드 프랑스(프랑스 FA컵)를 제패할 경우, 이미 우승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과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을 더해 ‘쿼드러플(4관왕)’을 달성하게 된다.

PSG 이강인, 내달 1일 인터밀란과 UCL 결승서 격돌

토트넘 손흥민은 오는 22일 맨유와 UEL 우승 다툼

다만 축제 분위기인 팀과 달리 이강인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즌 초반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요긴하게 활용됐던 것과 달리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출전 시간이 급감했다.

급기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프로페셔널리그 이적설도 퍼졌다.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선발은 물론 교체도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강인은 리그에서 눈도장을 찍은 뒤 출전 기회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지난 9일 노르웨이 노들란 보도의 아스프리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도/글림트(노르웨이)와의 UEL 준결승 2차전에서 2-0으로 승리, 합계 점수 5-1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UEL 초대 챔피언’ 토트넘은 2007~2008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의 무관 탈출을 꿈꾼다.

결승 상대는 같은 EPL 소속이자 과거 박지성의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다.

토트넘과 맨유는 오는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트로피를 다툰다.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손흥민은 지난달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UEL 8강 1차전에서 발 부상을 당한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덧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7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어 몸 상태가 우려된다.

다만 무관 탈출이 걸린 결승전엔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은 꾸준히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시즌 시작에 앞서 손흥민은 “나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토트넘에 왔다”며 “팀으로도 개인으로도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흥민이 UEL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무관의 한을 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